

크로스로드 특강 (4)

# 문화사로 읽는 종교개혁

## - 엘리트 종교와 대중 종교

2020년 6월 22일 (월)

최종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 종교개혁에 제기할 기본적인 질문들

## 1. 시대구분의 적확성 문제

- ✓ 초대교회 - 중세교회 - 종교개혁 - 근, 현대 교회
- ✓ 위 구분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 - 동일 언어와 동일 문화권

## 2. 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교개혁

- ✓ Confessional straitjacket - 환원적 방법론
- ✓ 과연 종교개혁은 신학적 이슈로 발생했는가?
- ✓ 종교개혁기 'Ad fontes' - 지향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 ✓ 오늘 교회가 돌아갈 모습은 무엇인가?

## 3. 인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교개혁

- ✓ 종교개혁기 가장 큰 이슈 "자본주의 이행논쟁"
- ✓ 중세 말의 이슈와 종교개혁기 이슈의 공통 분모 "자본" - 면죄부, 예정설
- ✓ 봉건제에서 국민국가 - 국가주의 논쟁
- ✓ 국가 사회 속에서의 제도 교회의 역할
- ✓ 17세기에 대한 재고 -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

# 교회를 다시 정의한다

- 역사적 제도교회 민족과 계급
  - 교회의 회복은 이상적인 교회라는 허공 속의 상상의 이미지를 찾는 데서 출발해서는 곤란
  -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터를 디디고 있는 ‘땅의 교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
  
- 전통의 종교, 대중의 종교
  - 대중들의 삶 속에 먼저 광범위하게 퍼진 개념들이 제도 교회가 수용
  - 전통 형성의 주체로서 교회의 관념. ‘기독교’라고 정체화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의를 유효하게 하는 힘, 정의를 만들고 추진, 결정하는 총체적 힘이 교회에 있음을 선포.
  
-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고찰할 것인가?
  - 313년 - 교회와 국가의 관계
  - 1215년 - 천상의 제도 완성
  - 1789년 (1962년) - 사회 속에서 교회의 지점, 역할 재고

# 엘리트 종교와 대중 종교가 만날 때

- 교회의 권세가 내포하는 갈등의 핵심 - 사제의 권능은 어디까지인가?
  - 사제와 속인의 분리, 사제의 신성화 낱음
  - 1215년에 이르러 사제의 관념이 발전하여 초인적인 사제상 구현
  - 죄의 사면을 통제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
  - 만약 사제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재현하고 그의 권능을 실현한다면 (특히 성체성사에서) 사제를 실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 신품성사 자체가 하나의 화체(사제를 신성한 몸으로 만드는)가 아닌가?
  
- 면별부는 전통의 종교, 대중의 종교를 나타내는 극적인 사례
  - 칠성사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성사의 엄수로 충족할 수 없는 구원의 요구에, 대중들의 필요에 대한 교회의 수용이라는 측면
  - 면별의 시행과 이론적 정립은 대중 종교의 집단 심성의 표현. 시작은 교황에서, 발전은 대중의 열망에서, 쌍방향의 관점

# 면벌부의 문화사

- 성가대장 피에르(d.1179)
  - ‘연옥’이라는 명사 고안, 면벌부 조건 정확하게 제시
  - “면벌부는 (1) 교회의 권위, (2) 성도의 교통, (3) 참회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세 조건이 갖춰질 때 수여”
  
- 공로의 보고(Treasury of Merits, 1343)
  - 1343년 교황 클레멘트 6세가 공로의 보고 인정하면서 면벌부 역사적 정점
  - 공로의 보고 이후 폭발적인 성장
  - 면벌부 남용의 직접 책임은 교황에게, 면벌교리는 대중들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발전.
  - 오남용의 단초 -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 매매
  -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 신학적 수용은 15세기부터
  - 연옥 사상의 교리화와 궤를 같이 함
  - 민중들 사이의 민간 신앙, 종교적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면벌수사들의 행태, 재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교회의 암묵적인 용인 등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
  -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면벌부의 효력을 죽은 영혼에게까지 확대

# 면벌부, 어떻게 볼 것인가?

- 중세인들의 종교 심성 속에서 본 면벌부 교리
  - 면벌부 제도가 종교개혁 시기까지 약 400년 이상 존속
  - 그 이론적 구조가 오늘까지 유효
  - 면벌부는 400년 유지된 가톨릭 구조의 상징
  - 이 틀은 기성의 제도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왜곡
  
- 면벌부 - 재물을 통해 대중과 교통하는 관용과 배려의 도구
  - 교회 권위와 대중의 욕망의 불안한 만남
  -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 (1476)
  - 대중 종교의 집단 심성의 표현
  - 화폐경제의 발전, 자본주의, 수요와 공급
  - 교회의 권위, 성도의 교통, 참회의 노력과 헌신
  - 욕망을 매개로 한 대중의 요구와 자본시장의 힘의 작동 결과
  - 유럽을 나눈 것은 면벌부가 아니라 면벌부를 둘러싼 교회와 대중의 욕망
  - 면벌부 시장의 성장 - 금욕의 종교와 욕망의 자본이 긴장없이 만날 때
  - 종교개혁이후 화폐 매매 금지

# 종교개혁은 불안의 고리를 끊었는가?

- 개인에게 던져진 불안 - 지방사 연구
  - 개신교 -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종교적 역할
  - 수정주의 연구 - 더디게 수용된 프로테스탄트 신학
  - 개신교 신학과 세속주의의 극적인 조우 - 심성사 연구
  - 구원의 '예정' 여부, 부름 받은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명' 강조
  - 구원을 교회가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 일인가?
  - '자본'에 대한 긍정과 개신교적 경건- '선택적 친화력'
  -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구원에 대한 대안
  - 교양을 갖추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르주아 계급
  - 구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
  - '직업적인 소명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선택된 자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편
  - 노동은 단순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
  - 자기 비움의 평안보다, 선택 받은 자로 구원을 보증하려는 욕망에 따른 불안



# 개신교 공동체와 금욕주의의 이중성

- 근대의 불면증의 등장 - 씨머스브렘너
  - 17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변영과 근심이 혼재
  - 잠을 탐닉하는 것은 도덕적 질환
  - 종교적 금욕과 세속적 욕망 사이의 불안한 줄타기
  - 불면증의 극복 - 제국주의 시대의 탈바꿈
  - 자본과 손에 손 잡고 - 미국의 대각성운동
  
- 프로테스탄트, 욕망을 긍정하다
  - 국가의 경제적 간섭 최소화, 시장의 자율성 극대화
  - 모든 거시적인 관심을 개인에게 환원 - 신앙에 대한 강조
  - 형제애에 기반한 정의적 평등보다 가부장적 온정주의
  - 예정 혹은 소명 - 발전된 형태의 면벌부, 생명보험에서 전환사채로 진화
  - 구원은 내세의 약속이 아닌 현세에 확인가능한 것
  - 파우스트 - 금욕주의란 선한 것을 원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악을 낳는 힘
  - 청교도 공동체와 금욕주의의 이중성
  - 종교적 금욕과 자본의 욕망 - 동전의 양면

# 교회 성장 - 성인들의 '공로의 보고'

- 교회성장 자체가 면별부
  - 면별부의 구조 자체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면별수사의 인격과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회피
  - 욕망이 잘못된 권위에 의해 오도될 때 욕망하는 자를 삼킨다. 하나님의 종이 라는 목회자의 권위, 이미 주의 종의 인도와 발자취를 따라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자들과의 교통, 그런 성취를 이루기 위해 절제하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동력이라면 이미 면별부에 필요 충분 조건
  - 삶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 제도교회가 약속하는 면별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한국 교회는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하는가?
  - 핵심 - 이론 체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을 성찰하고 사유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 긴장성 부동화 (tonic immobility)

# 교회, 근대성의 결정체

- 근대의 핵심어 - 효율, 대형교회는 규모가 아닌 시대의 정신의 산물
  - 근대의 구조 속에 근대교회를 읽어야
  - 탈근대 시대에 여전히 근대적 틀이 유효한가?
  - 틀이 상수라면? 그 틀에 부합하는 담론
  - 각개 약진 외에는 답이 없다
  - 무한경쟁의 구조에서 구조적 현실을 정당화하는 담론
  
-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 땅의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리려는 시도 - 복음과 구원의 이름으로
  - '왜 그럴까?'가 아니라 '교회는 그렇다'에서 출발
  - 교회는 시대의 산물이다. 규모로 '대형' 교회의 현상이 아니라 시대의 종교 정서 반영
  - 작은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교회가 욕망을 투영하는 장소로 되는 한 규모에 무관

# 근대세계의 도전에 대한 대응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66~1870)
  -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반응
  -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 무염시태 교리
  - 범신론, 이성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진보 배격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성찰적 근대성 (Reflexive modernity)의 표출
  - 비오 9세 이후 100년 동안 교황들은 과거의 권위 방어 정책
  - 대량 이탈, 교회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개혁 - 칼 라너와 이브 콩가르
  - 요한 23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
  - 이 세계에 대한 긍정적 적응, 신스콜라주의의 극복
  - 교회가 접한 세계와 사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혁명적 전환
  - 내부 지향의 그리스도의 신비체에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

# 개신교의 비판적 성찰능력

- 성찰적 근대화의 적용
  - 내부의 논리는 유지되나, 교회는 사회적 공감력 상실
  -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주어진 것을 우리 자신과 공동체, 사회에 대한 치밀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 역사의 현실을 직면하는 연습을 하는 것
  - 참된 비판적 성찰 능력 - 텍스트가 적용되는 컨텍스트로 관심 환기
  
- 제도화된 종교는 계급과 민족을 기반으로 성장
  - 종교는 배제와 혐오에 가장 근접할 수 밖에 없다
  - 배제와 혐오는 타자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과 억압으로 표현되는 동시에, 내부자 자신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자아도취. 타자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
  - 배제와 혐오는 모두 인종주의의 혐의
  - 제도화 (institutionalized)된 사유의 극복
  - 대중의 성찰을 도울 것인가? 길들일 것인가?